

광주은행, LG엔솔 손잡고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공략

소규모 태양광 묶어 전력 판매 VPP 사업자 지원

태양광 전용 대출 이어 녹색금융 허브 강화 노력

광주은행이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입찰시장과 가상발전소 사업 공략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지난 4일 LG에너지솔루션과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공동 참여·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은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전력 판매권을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참여 규모와 운영 역량의 한계로 진입 장벽이 높다.

이에 다수의 발전원을 하나로 묶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참여 사업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LG에너지솔루션 VPP 참여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발전시설과 부지 담보 전력 판매대금 채권 양도 등을 조건으로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전력 공급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외국인 팔자에 코스피 급락
'5163.57' 4% 가까이 빠져

코스피가 5일 외국인의 5조원대 매도세에 4% 가까이 급락했다. 원화 환율은 20원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0.07p(2.24%) 내린 5251.03으로 출발해 207.53p(3.86%) 내린 5163.57로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줄여 한때 5304.40까지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가 가팔라져 5142.20까지 밀리기도 했다.

유기증권시장에서 개인은 6조7639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 2일 기록한 역대 최대 순매수액 4조5874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외국인은 5조216억 원, 기관은 2조705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도액 역시 2025년 11월 21일(2조8308억 원)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6984억 원 매도 우위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매도에 원화의 가치도 급락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8.8원 오른 1469.0원을 나타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기술주 한파에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삼성전자는 5.80% 떨어진 15만9300원으로 '16만 전자'가 깨졌고, SK하이닉스는 6.44% 떨어진 84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지금은 지원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0월 현대건설과 체결한 녹색금융 협력에 이은 후속 행보다.

광주은행은 민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시장 확대에 맞춰 태양광 전용 금융상품인 'RE100 SOLAR-LOAN'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참여 사업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LG에너지솔루션 VPP 참여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발전시설과 부지 담보 전력 판매대금 채권 양도 등을 조건으로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전력 공급 계약이다.

약 범위 내에서 최대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금융 지원이 지역 내 영세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VPP 기반 전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신성장전략본부장은 "현대건설과의 협력이 발전소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약은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4일 LG에너지솔루션과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공동 참여·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 전남본부, 신뢰 회복 자정 결의대회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윤리·준법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준법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내부 통제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기부, 내달 4일 광주서 합동 벤처설명회

한국벤처투자·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참여

수도권 유력 벤처투자자들과 유관기관이 함께 광주를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유관기관 합동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발표한 '스타트업 협력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12일 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벤처기업 성장

12일 등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증기부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업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를 소개하고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영암삼호 풍력 고정가격계약 선정
재생에너지 기획 전문역량·사업수행능력 인정

전남개발공사는 기후에너지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영암 삼포지구에 추진중인 영암삼호풍력 발전사업(36㎿)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산업경제 파급효과, 에너지 안보, 계통영향,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육상풍력 입찰에는 총 4개 사업(176㎿)이 참여했으며, 이 중 3개 사업(156㎿)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참여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국산 풍력터빈을 적용해 국

내 풍력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주민 잠재 사업을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계획으로 주민수용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727㎿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BESS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육상풍력 고정가격입찰 선정은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기획·개발 역량과 사업수행능력이 반영된 결과로,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계기로 사업 영역을 육상풍력까지 확장하게 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발명진흥회, 광주 중기 IP 경쟁력 키운다

'IP 나래 프로그램' 참여 모집

IP 나래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 창업 7년 이내 또는 신산업 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기술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연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약 100일간 특허전문가의 멘토 지원을 받게 된다. IP 기술전략과 경영전략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컨설팅 결과물로 특허출원과 특허분석 보고서가 지원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빛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토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행 지역상공인

○ 광남일보 ○ 시사증권경제판단

온라인 견적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몰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